

이슈 브리핑

① 이슈 요약

- ◆ 중국, 「자동차 산업 디지털 전환 실시 방안」을 발표하고 디지털 전환을 위한 단계별 목표 및 실행 로드맵 제시
- ◆ 중국,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한 이구환신 정책을 '26년에도 유지하되 자동차 보조금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
- ◆ 중국, 「휴머노이드 로봇 임바디드 표준화 기술위원회」를 출범하며 로봇 산업 성장 대응을 위한 표준 구축 본격화
- ◆ Mobileye,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 인수를 통해 자율주행 외 물리적 AI 영역으로 사업 확장 추진
- ◆ Bosch, CES 2026 행사에서 AI·SW 중심의 기술 전략 및 모빌리티 관련 핵심 기술 대거 발표
- ◆ Autoliv, CES 2026 행사에서 자율주행차 실내 공간 활용성 변화를 고려한 수납형 스티어링 휠 공개

◆ 중국, 「자동차 산업 디지털 전환 실시 방안」 발표

- 공업정보화부(MIIT) 외 3개 부처는 자동차 산업의 디지털·지능화 수준 제고를 목표로 「자동차 산업 디지털 전환 실시 방안」*을 발표

* 工信部联通装[2025]278号 《汽车行业数字化转型实施方案》

- 추진 목표는 '27년까지 주요 완성차 기업의 스마트 제조 수준 향상 및 부품 기업의 디지털 역량 강화*·'30년까지 산업 전반의 디지털 고도화 등이며, 추진과 관련하여 6대 실행 방안**을 제시

* '27년까지 설계 SW 활용률 95% 이상, 핵심 공정 CNC(컴퓨터 수치제어) 비율 70% 달성, '25년 比 노동생산성 10% 향상, 제품 개발·인도 기간 20% 단축 등

- ** 기업 진단·중소기업 지원·AI 시범·스마트 공장 육성·표준 구축·핵심 기술 개발

工業部('25.12.30.) <https://bit.ly/4jt1Cj3>

証券時報('25.12.30.) <https://bit.ly/4swRUjI>

◆ 중국, '26년에도 자동차 등에 대한 이구환신 정책 지속 발표

- 국가발전위원회와 상무부는 낡은 소비재의 신제품 교체를 촉진하는 이구환신(以舊換新) 정책을 '26년에도 지속한다고 발표

- 내수 부진 속 소비 진작 기조는 유지하되, 지원 대상과 보조금 비율을 조정할 예정이며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

* (기존) 차량 1대당 1.5만~2만 위안(약 300만~400만 원) 보조금 정액 지원 → (변경) 차량 가격의 최대 10~12% 지급 및 1.5만~2만 위안의 보조금 상한 설정

- 고가 차량에 유리한 정률제 보조금이 도입되면서, BYD 등 보급형 브랜드의 신차 판매 증대 효과는 제한될 것이라는 관측도 존재

NDRC('25.12.30.) <https://bit.ly/49AqL7c>

Bloomberg('25.12.31.) <https://bit.ly/4bpdEYP>

◆ 중국, 「휴머노이드 로봇 임바디드 표준화 기술위원회」 출범

- 공업정보화부(MIIT)는 「휴머노이드 로봇 및 임바디드 인텔리전스 표준화 기술위원회」를 출범하고, 관련 산업의 표준 제·개정 작업 본격 착수

- 위원회는 정부·대학·연구기관·기업(50% 이상)으로 구성되며, 기초 공통 기술, 핵심 부품, 로봇 시스템, 서비스 및 보안 등 산업 전 주기에 걸친 표준 체계 구축을 전담할 예정

工業部('25.12.27.) <https://bit.ly/3LkaDys>

新華社('25.12.31.) <https://bit.ly/49PokxJ>

◆ 이스라엘 자율주행 기업 Mobileye,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 인수

- 자율주행 비전 인식 전문 기업인 Mobileye가 이스라엘 로봇 스타트업 Mentee Robotics을 약 9억 달러에 인수할 것임을 발표
- 이번 인수는 자율주행차 중심의 인지·의사결정 기술을 휴머노이드 등 '물리적 AI(Physical AI)' 영역으로 확장하기 위한 행보로 평가됨
- 인수 이후 Mentee Robotics는 Mobileye 내부의 독립 조직으로 운영되며, '26년 고객사 대상 시험 배치, '28년 상용화 및 대량 생산을 목표로 하드웨어·소프트웨어 통합 로봇 플랫폼 개발을 추진할 예정

Mobileye('26.1.6.) <https://bit.ly/3LCTfFb> Bloomberg('26.1.7.) <https://bit.ly/4aKYJK>

◆ Bosch, AI·소프트웨어 중심 차세대 기술 전략 발표

- Bosch는 「CES 2026」에서 물리적 세계와 디지털 세계를 연결하는 자사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·AI 기술을 강화할 것임을 발표
- 당사는 '30년까지 SW·서비스 매출 60억 유로(약 10조 원) 창출을 목표로, '27년까지 AI 분야에 25억 유로(4.2조 원) 이상을 투자할 계획
- 또 SW·서비스 매출 2/3가 모빌리티와 관련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, AI 콕핏·by-wire·차량 모션 제어·차세대 레이더 등 핵심 기술을 공개

Bosch('26.1.5.) <https://bit.ly/4qHZOoK> WSJ('26.1.6.) <https://bit.ly/4qgUtFg>

◆ Autoliv, 자율주행차를 위한 수납형 스티어링 휠 공개

- 스웨덴 부품사 Autoliv는 「CES 2026」에서 자율주행차의 실내 공간 활용을 높이기 위한 접이식(foldable) 스티어링 휠을 공개
- 해당 제품은 레벨4 자율주행 모드에서 대시보드 하단에 자동 수납되고, 수동 운전 시에는 운전자 앞으로 전개되어 스티어링 휠로서 기능
- 당사는 '26년 하반기 Tensor社*의 레벨4 자율주행차에 해당 제품을 적용한다고 밝혔으나, 현행 안정 규정상 상용화에는 제약이 있으므로 장기적인 실내 레이아웃 변화에 대비한 선행 기술이라는 평가도 제기됨

* 美 AI 기반 자율주행 스타트업으로, 개인 소유형 레벨4 자율주행차를 개발 중

Autoliv('26.1.5.) <https://bit.ly/4qMDRVO> Car & Driver('26.1.7.) <https://bit.ly/4pxS2Nx>